

主穀價格과 流通構造의 改善方向

吳 相 洛

<目 次>

1. 農產物 流通의 特殊性
2. 穀物 流通의 現狀
3. 主穀價格의 合理化와 流通構造의 改善

1. 農產物 流通의 特殊性

(1) 農產物의 生産 및 流通의 一般의 特性

農業部門은 元來 다른 經濟部門보다 긴 歷史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農業部門의 成長을 위한 補助的 役割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相對的으로 落後產業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點에서 볼 때 우리는 非農業 特히 工業部門에 適用되는 經濟理論이나 流通理論을 그대로 分別없이 農業部門에 適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經濟政策이라는 것이 또한 具體的인 經濟現象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면, 農產物 價格政策과 工產物 價格政策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農業과 工業은 그의 生産, 消費, 流通등에 있어서 서로 構造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業의 特殊性을 工業과 比較하면서 分析한다는 것은 政策方向이나 理論의 模索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義意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農業의 特殊性을 工業에 比較하면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農業生産者는 個人主義의이며 獨立的이다. 그러나 工業은 分化도 하지만 結合도 한다.

둘째, 農產物은 生産者가 消費하는 部分이 많으나 工業의 경우는 주로 他人을 위해서 生産한다.

셋째, 農業은 生計의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나 工業은 家庭과 企業이 分離되어 있다. 즉 前者는 生産과 消費가 混合되어 있지만 後者는 그것이 分離되어 있다.

이와 같은 差異點을 가지는 農業을 좀더 簡明하게 生産, 消費 및 流通의 세가지 側面

으로 나누어 그의 特殊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生産面에 있어서의 特殊性

農業은 土地가 重要한 生産手段이며 그것이 質的 量的으로 制限되어 있다. 特히 農地의 收穫체감의 法則등은 바로 여기에서 發生한다고 하겠다. 또한 農業生産은 有機的이며 生物學的인 것으로서 自然의 制約을 받고 있다. 그럼으로 生産의 調節이 困難하며 分業이 곤란하게 됨은 물론 勞動需要가 年中 均分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勞動은 家族勞動이 主動的인 役割을 하며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낮다고 하겠는데 農業의 後進性은 바로 여기에 因緣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農業은 資本과 勞動의 轉換性이 적은 同時에 勞動 自體의 生計手段이 되고 있다는 것등을 그의 生産上에 있어서의 特徵으로 들 수가 있다.

2) 消費에 있어서의 特殊性

農產物은 工產物에 比하여 需要의 彈力性이 거의 硬直的이라고 할만큼 強하며, 特히 食糧의 消費에 있어서는 「엥겔」法則이 作用한다. 또한 農產物은 工產物의 消費에 比하여 볼 때 多樣性을 띠지 못하고 있다.

3) 流通面의 特殊性

農業이 지니는 生産的·消費的 性格이 工業의 그것과 比較해서 여러가지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流通面에 있어서도 例外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分明하다.

첫째, 農業生産이라는 것이 주로 自然條件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生産行爲임으로 經營規模, 經營形態, 生産單位主體의 立地, 商品의 供給形態 등이 工業의 그것과 判異하다. 大規模經營의 維持難, 家族勞動에의 依存 또는 家計農業의 經營形態, 消費地에서의 遠距離立地, 供給의 季節性등 生産構造上的 諸特徵은 集中化, 均衡化, 分散化過程에 있어서 流通體系를 한층 複雜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어 農產物 流通構造上에 있어서 그의 性格을 決定하는 데 重要한 作用을 加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生産이 分散立地하고 自然의 影響을 크게 받으며 消費地와의 距離가 멀다는 것은 바로 流通費用 특히 輸送費가 많이 들고 價格에 對한 需給의 適應性이 微弱하며 去來過程에 있어서 中間商人의 支配를 많이 받는다.

둘째, 農產物은 일반적으로 自然에 影響을 많이 받는 生物學的 生産品임으로 腐敗性商品이며 그 價値에 比해서 容量이 크며 品質이 生産年度 지역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農產物의 商品의 特性은 輸送, 貯藏, 加工, 包裝, 等級化, 品質管理등 流通過程에 있어서의 物理的 取扱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時間的, 場所的, 形態的인 效用의 創造를 한결 더 要求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셋째, 農産物은 그의 大多數가 食品으로 提供되고 있는 것임으로 需要는 年中 持續되지만 生産의 季節性으로 因하여 供給이 斷·續的이어서 그 價格의 甚한 騰落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이러한 現象은 主食物(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穀物中에서 米麥)의 경우에 있어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農産物中에는 穀物과는 달리 畜産物과 같이 消費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形態上의 變化 즉, 加工過程을 거쳐야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農産物은 需給面에서 硬直性を 나타내는 것이 特徵이라고 하였지만,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서 消費者는 보다 높은 商品으로서의 高級食品, 便宜食品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需要의 樣相에 있어서 서서히 變化를 招來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消費構造, 즉 需要構造는 消費者嗜好의 多樣化와 함께 高度化傾向을 나타내고 있어, 生産物에 對한 流通費用의 增加傾向이 나타나고 있으며, 消費者들 亦是 보다 많은 서서비스를 願하는 까닭에 이와 같은 費用의 增大에 더욱 자극을 加하게 된다.

農産物流通費用의 肥大傾向은 바로 消費者價格의 增大를 必然的으로 隨伴하게 되는 데 이 原因은 바로 이상에서 指摘한 農産物의 生産面에 있어서의 諸特徵 및 그 自體의 物理的 特徵에 부수하여 最近에 있어서는 이러한 消費需要構造의 諸特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 農産物流通의 現況

한 商品의 流通構造는 그 商品의 ① 生産構造 ② 自然的·物理的 特性 ③ 市場形態 ④ 流通擔當機構의 性格 ⑤ 物的, 技術的 諸流通機能의 展開樣式 如何에 따라서 決定되어 진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한 商品뿐만 아니라 全體 農産物에 對해서도 適用될 수 있는 前提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이러한 觀點에 따라서 우리 나라 農産物流通構造上의 諸般現象을 考察하여 본다.

1) 農業生産 構造

生産構造 如何는 流通構造의 性格決定에 영향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우리 나라의 農業生産構造는 ① 經營單位의 零細性, ② 家族勞動에의 依存, ③ 商品化率의 低位, ④ 米穀爲主의 生産, ⑤ 生産單位의 全國의 分散등을 그 特徵으로 들 수가 있다. 이같은 狀況下에서의 個別生産農家は 積極的인 市場參與가 어렵고, 또 市場條件은 無數한 農民相互間의 完全競爭形態를 取하게 됨으로 生産者의 市場支配力은 相對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生産者가 農業協同組合을 통하여 流通過程에 直

接參與토록 試圖하는 것은 農民의 市場支配力を 強化시키는 한가지 方便이 되며, 이러한 點에서 農協의 流通參與가 우리 나라에서는 큰 意義를 지닌다고 할 것이며, 主要農産物에 대해서는 價格의 季節別 平準化를 維持하여 生産者와 消費者를 同時에 保護하고, 그의 生産力を 強化한다는 立場에서 政策的으로 二重價格制度를 效果있게 採擇할 것이 要望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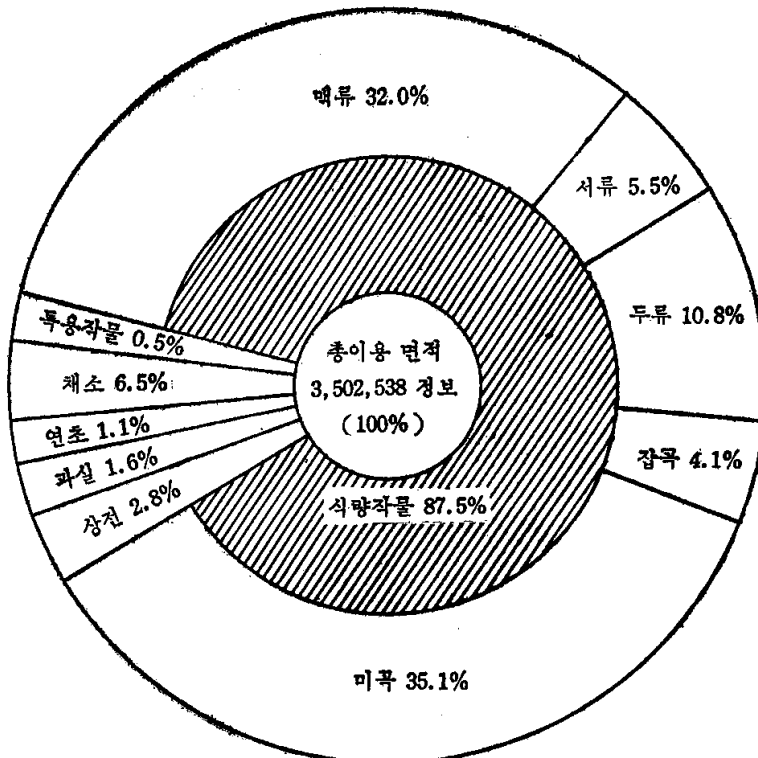
2) 米麥中心의 農業經營

農産物의 自然的, 物理的 特性 즉 腐敗性, 「벌키」性(bulky), 季節性, 品質의 多樣性등도 또한 流通構造의 性格決定에 있어서 매우 重大한 要素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生産・流通되고 있는 農産物은 腐敗性이 比較的 적은 米麥이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腐敗性이 相對的으로 매우 強한 果實, 野菜, 畜産物등은 그 比重이 매우 낮다.

農協이 發刊한 1970年 農業年鑑에 의하면, 1969年末 現在 總耕地利用面積 3,502,538町步 중 87.5%가 食糧作物에 利用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米穀과 麥類生産에 利用되는 것이 約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農業經營體制는 아직도 철저한 米麥中心의 經營體制인 것이다.(表 1)

<表 1> 耕地面積의 利用(1969年 現在)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農家戶當 平均 農業粗收益을 볼 것 같으면 農作物收入이 全體收入의 9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中에도 米穀과 麥類의 收入이 農作物收入의 約 80%를 차지하는 이른바 米麥中心의 農業이라고 할 것이다. (表 2)

<表 2> 農 業 粗 收 益(戶當平均) (단위 : 원)

年度別	合計	농 작 물 수 입											농작물 이외의 수입
		小計	米穀	麥類	雜穀	두류	서류	특용 작물	과실	기타	부산물	채소	
1967	54,765	48,863	29,264	4,386	751	2,381	1,589	3,132	1,538	62	369	5,391	5,902
1969	73,997	64,673	39,059	4,674	883	3,644	1,767	4,756	2,522	63	465	6,840	9,324

資料 : 「농업연감」 농협 1970, 1968

여기서 한가지 더 指摘하여 두고자하는 特徵은 麥類의 耕地面積이나 米穀의 耕地面積이 큰 差異는 없으나, 生産物의 收益面에서 볼 때 農作物收入中 米穀이 占有하는 比重을 約 60~70%가 된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農民의 經濟는 傳統的으로 米穀을 주로 하는 米穀 經濟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穀物生産에 치중한 韓國農業과 穀物市場이 안고 있는 特異한 問題는 食糧作物이며, 主食이 되고 있는 穀物生産量이 늘어나는 人口에 比하여 不足되고, 또한 傳統的인 穀物市場의 前近代性 流通構造의 非合理性으로 야기되는 消費地의 穀物市場에 있어서 需給調節의 不均衡과 中間商人에 의한 買占賣借으로 穀價의 不安定이 惹起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生産·流通되고 있는 農産物의 量的 質的 構成은 主食品인 米·麥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農産物의 流通産業도 搗精業·米穀倉庫 등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米·麥爲主로 發達되어 왔고, 또한 政府의 流通干涉도 相對的으로 이 部門에 가장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市場形態

市場의 크기나 消費者嗜好의 變化가 어떠한 樣相을 띠우느냐 하는 것은 바로 商品의 生産構造面에 逆으로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의 流通費用이나 流通經路 등의 面에 있어서도 重要한 影響을 미침으로서 마아케팅 樣相을 크게 支配하는 要素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生産되는 農産物의 主市場은 大部分이 國內市場 즉 都市地域의 非農業從事人口를 販賣市場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海外市場에 依存하는 바는 生絲原料로서의 蠶繭·葉煙草, 莞草製品이나 竹細工品, 人蔘등의 一部 特産物에 不過할 뿐이다. 또한 國內市場에 消費目的으로 提供되는 農産物의 商品의 形態도 加工도가 매우 낮거나 그렇지 않으면 原形 그대로인 것이 大部分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農產物 國內市場은 人口增加率이 해마다 低下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水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매년 그의 範圍가 擴大되어 가고 있으며, 消費構造 또한 所得增加에 따라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차츰 質적으로 高度化되어 가는 立場에 놓여 있다.

1968年 人口問題研究所가 發表한 資料에 의하면 1960~1965년의 5年期間에 있어서의 人口의 年平均增加率은 27.5%이며, 1965~1970年 5年間の 年平均增加率은 23.5%로 推定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都市人口의 比率은 점차로 늘어나는 實情에 놓여 있다. 즉 人口의 都市化 指數를 보면 1960年에서 28.0%에서 1971년에는 37.3%로 增加하고 있음이 推定되었다. 農家人口와 非農家人口의 構成을 經濟企劃院의 資料에 의하면 1960年 우리나라 全體 入口에 對한 農家人口의 構成比는 41.7%이었으나, 1965년의 그것은 44.8%, 1968년에는 48.3%로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1970年代의 그것은 50% 이상을 突破하게 될다는 것이 分明하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나라의 農產物消費人口 즉 市場規模가 급격히 擴大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外市場 規模도 農產物의 경우 매우 급격히 擴大되어, 1968年度 同輸出實績은 21,607천「달러」에서 1969年度에는 29,748천「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韓國銀行이 發表한 資料에 의하면 經濟成長이 進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民間消費支出額이 1965年度 不變價格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1968年 8,736億원에서 1969年 9,696億원으로 年間 約 11%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民間消費支出에 對한 飲食料品の 支出은 그 構成面에 있어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그의 絕對額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급격히 增加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1968年 4,903億원에서 1969年 5,394億원으로 飲食料品の 支出이 增大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農產物市場形態는 그 크기에 있어 급격히 擴大되어가고 있으며, 消費構成에 있어서도 그 內容이 점차 多樣化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農產物流通機構

우리 나라의 農產物 流通機構는 우리나라의 歷史的인 特殊性으로 因하여 社會經濟적으로 諸般制約을 받았기 때문에 零細化·非組織化를 그의 特徵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現象은 在來市場을 中心으로 한 農村蒐集市場과 消費都市의 小賣市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 나라의 農產物流通體系는 都市大都賣市場(中央都賣市場)을 頂點으로 하여 生産物이 搬入되고, 이것은 最終的으로 小賣商을 거쳐서 消費者에게 到達되는 集中的 經路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產地蒐集이나 小賣過程에는 數 많은 獨立된 零細한 中間商人이 介在되고 있음으로 蒐集, 仲繼, 配給過程에서 機能의 重複과 經路의 重疊이 많아 극히 非能率的인 面을 指摘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流通經路內部에서의 統合作用이 이루어져 生産者와 小賣商間의 直結去來가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分散的 流通經路(decentralized channel)의 採擇이 促進되고 있는 美國의 경우와 比較할 때 매우 對照的 現象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 流通機構가 이처럼 零細하고 非組織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根本原因은 첫째, 前述한 바와 같이 農產物의 生産單位가 너무나 零細하고 全國的으로 散在되어 있어 數많은 獨立된 中間蒐集商人의 介在없이는 農產物의 大量 蒐集이 不可能하다는 것, 둘째 流通機構 그 自體가 完全失業者 또는 半失業者를 過度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 셋째, 商人의 財力이 脆弱하다는 것, 네째로는 他產業資本이 流入될 수 있는 投資誘引要素가 적은 것등을 들 수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農產物流通은, 그의 流通機構가 이상과 같은 諸矛盾은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經路의 複雜化·多岐化, 不良不正去來의 盛行, 季節的 價格變動幅의 擴大, 不合理한 流通費用의 增大등 惡條件의 諸現象이 露出하게 되는 것이다.

5) 物的·技術的 諸流通機能의 展開樣式

農產物의 流通에 있어서 그의 規格化, 包裝, 加工, 輸送, 保管 또는 貯藏, 通信, 危險負擔, 金融등과 같은 物的·技術的인 諸要素의 發達程度 그의 展開方式如何가 지니는 意義는 매우 重大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農產物의 生産·商品性 및 消費構造上的 諸般制約과 함께 流通機構가 零細·非組織的이기 때문에, 流通機能의 專門化 能率化가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自生的·自發的으로 推進되어 지지 못하고 있다.

先進國의 경우 生産者나 流通業者는 農場에서 있어서 農產物商品을 物理的으로 取扱할 경우 輸送, 貯藏, 加工에 있어, 新製品의 開發을 위한 市場情報의 蒐集傳達에 있어, 流通資金의 供給에 있어, 또는 價格變化에서 危險負擔의 分散등을 期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技術, 새로운 經營方式 및 새로운 施設의 活用方法을 敏感하게 習得하고 이를 適切히 援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을 流通外的 諸般與件的 發達과 政府의 流通에 대한 制度的 支援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데 由來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物的, 技術的 諸流通機能이 能率的으로 展開되어 지지 못하고 있음이 分명한 現實이다. 즉 이러한 것은 等級化 및 檢査의 不徹底, 輸送 및 貯藏施設의 不足, 그로 因하여 發生하는 高率의 破損·腐敗 및 減耐現象, 制限된 市場情報, 加工技術 및 加工産業의 未發達, 價格變動의 不安定性, 流通資金의 供給不足과 消費者 金融의 缺如 등에서 如實히 엿볼 수 있다.

2. 穀物流通의 現狀

(1) 供給動向

우리 나라의 農業은 主穀農業이며 그것도 米麥中心의 主穀農業이라는 것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支配的인 農產物流通市場은 바로 米麥中心의 穀物市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農產物流通의 諸般特徵과 問題點의 發見은 우리나라 米麥中心의 穀物市場을 考察하지 않고는 不可能한 것이다.

앞의 <表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全體耕地利用面積의 87.5%가 食糧作物에 利用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約 80%가 米穀과 麥作을 위하여 利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米穀은 우리 國民이 가장 많이 먹는 主食用 作物인 同時에 需要에 對한 供給의 絶對量이 不足되는 故로 價格面에서도 他作物에 比하여 월등히 높은 經濟作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作物과 比較하여 볼 때 그의 生産量은 그렇게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穀物의 生産指數는 1965年 이후 별다른 變動이 없다는 것을 그 特徵으로 하는데 이와 反對로 채소, 과실류, 특용작물의 生産은 매년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現狀이란 米穀을 中心으로 하는 穀物生産에 필요한 耕地面積이 限定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食生活이 所得水準과 더불어 變化되어 가고 있으며, 한편 穀物類의 生産은 아직도 零細한 經營方式에 依存하고, 또한 氣候의 影響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年度別 穀物의 生産實績은 <表 3>과 같은데 米穀에 比하여 麥類의 生産이 더 높은 成長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食生活이 점차 粉食으로 많이 轉向되어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表 3> 年度別 糧穀生産 實積

(單位: 1000%)

年 度	米 穀	麥 穀	雜 穀	豆 類	薯 類	合 計
1961	3,462	1,800	96	190	383	5,933
62	3,014	1,688	99	181	439	5,423
63	3,758	1,180	107	181	513	5,741
64	3,954	1,858	125	190	935	7,065
65	3,501	2,136	120	202	1,045	7,005
66	3,919	2,374	107	195	971	7,567
67	3,603	2,253	113	235	631	6,836
68	3,195	2,453	116	287	758	6,856
69	4,090	2,459	136	272	777	7,737

資料: 「韓國의 消費市場」 한국마아케팅개발센터 1970

(2) 生産의 偏重性과 輸入

穀物生産은 氣候條件과 土壤의 條件이라고 하는 自然條件如何에 따라 그의 地理的 偏重性과 豐凶의 樣相을 除去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生産된 穀物을 販賣하기까지에는 流通過程에 있어 많은 問題를 갖게 되는 것이 普通이다. 즉 쌀, 보리, 薯類등의 主要穀物의 生産量을 地域別로 볼것 같으면 1969年 現在 쌀의 경우 영남·호남지방이 우리 나라 米穀生産의 約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麥類의 경우도 70% 이상이 영남·호남지방에서 生産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薯類는 강원도와 호남 및 제주도 지방에서 단연 그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生産地에서 生産된 穀物이 商品化되어, 消費地에서 販賣되기 까지 거리상 또는 多段階유통경로를 통과함으로써, 流通費用面에 있어서나 혹은 價格構成面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穀物의 生産動向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食生活에 필요한 消費需要를 위해서는 供給量은 많이 不足한 實情에 놓여 있다. 이는 아래에 說明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

즉 1965年이후 우리 나라의 穀物의 消費需要는 國內生産量만으로는 充當할 수 없었던 관계로 每年 輸入량이 늘어 가고 있다.

輸入量은 주로 小麥, 米穀, 大麥 및 小麥粉인데 이들은 1965年의 경우 630千%으로 全體需要量의 約 1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66년에는 556千%으로 줄었다가 1967年 이후 다시 늘어나서 1969년에는 全體國內米麥需要量의 26%인 2280千%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表 4>는 이것을 表示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穀物生産이 氣候條件에 의하여 凶作이 될 때는 특히 外穀導人이 불가피하

게 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오늘날 食糧自給度는 75%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볼 때 食糧의 自給化가 時急함은 물론이며 季節的인 生産과 年中 需要에 對備한 均衡있는 供給의 實現이 要望되는 것이다. 食糧自給度의 低調에 따른 供給의 不足은 穀價 그 自體의 上昇・不安定과 다른 物價의 不安定마저 招來하는 가장 큰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表 4> 米 類 의 輸 入 實 積 (單位: 1000%)

年 度	生 産	輸 入	計
1965	5,637	630	6,267
1966	6,293	556	6,849
1967	5,856	792	6,655
1968	5,648	1,270	6,918
1969	6,549	2,280	8,829

資料: 「韓國의 消費市場」 한국마케팅개발센터 1970

(3) 需要「패턴」의 變化와 穀物購入의 變化

米麥을 中心한 穀物의 生産이 다른 農産物이나 工業生産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低調하고, 自然條件에 따라 起伏이 甚하다는 것과, 또 經濟開發에 의한 所得水準의 向上이 食生活의 變化를 招來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事實은 나아가서 매년 우리의 食生活을 穀物主爲의 主食生活에서 肉類 및 加工食品으로 主食生活을 轉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또한 많건

<表 5> 全家口 月平均 食品費構成 推移 (單位: %)

구 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소 비 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 료 품 비	56.8	48.6	44.5	42.4	40.9	39.9
곡 물	34.0	26.6	19.9	19.0	18.4	20.6
육 어 개	7.2	6.8	7.3	8.0	7.3	7.1
유 란	0.8	1.0	1.0	1.0	1.4	1.2
채 소 밀 해 초	7.8	7.7	8.8	6.6	5.5	4.1
과 실	—	—	—	1.5	1.3	1.1
조 미 료	4.1	3.7	4.3	2.9	3.3	1.8
가 공 식 품	1.1	1.0	1.0	1.0	1.0	1.5
과 자 밀 청 량 음 료	0.6	0.7	0.8	1.0	1.3	1.2
알 콤 음 료	0.4	0.4	0.6	0.5	0.6	0.6
외 식	0.8	0.7	0.8	0.9	0.8	0.7

資料: 「한국통계월보」 경제기획원 1970.5

적건간에 그렇게 轉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暗示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5년의 경우 食料品費中 穀物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34%였었는데 1970년에는 20.6%로 下落하였다. 反面 과자 및 食品費의 比率은 1965년의 0.6%에서 1970년에는 1.2%로서 2배나 增加하였다. 한편 其他 品目에 있어서도 消費中에서 食料品費가 차지하는 比率은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食品費에 對한 比率은 比較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5>는 이와 같은 경향을 說明해 주고 있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 統計月報에 의한 都市勤勞者 家口當 所得階層別 食料品購入額의 추세를 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移行함에 따라 穀物購入에 支出되는 比率이 적어지는 데 反하여 肉魚介類, 果實調味料, 加工食品 등에 支拂되는 比率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月平均所得이 40,000원 이상의 階層에 있어서 특히 강력하게 나타난다.

한편 全國의 都市家口當 穀物購入量을 年度別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쌀의 購入이 점차 줄어드는 反面 보리쌀 또는 밀가루등의 구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米穀의 國內生産상태에 따라 穀物市場狀況을 잘 變化시킨다는 事實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穀物市場의 형태가 차츰 麥類에로 그의 中心을 옮겨갈 徵兆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需要轉向이 보다 效果的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 效果的인 價格政策의 수반을 전제로 한다.

(4) 穀物流通의 特殊性

穀物の 價格은 일반적으로 生産時期의 季節性과 우리 국민의 主食物로서의 年中需要라는 特徵때문에, 또한 氣候條件에 따른 豐凶作의 如何에 따라서 극히 敏感한 變動을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물가 상승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價格추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인바 이를 都賣物價指數와 比較하여 表示한 것이 <表 6>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穀價變動의 主導的 役割을 하는 米價의 都賣價格에 對한 季節變動은 1968年 이후 年中平準化現象을 보여주고 있으나, 米價에 對한 政府當局의 統制 내지 高米價政策으로, 出荷期인 10~12월에 떨어져야 할 米價는 오히려 上昇하는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 나라 米穀市場에 있어 需給에 의한 價格決定論의 適用이란 어려운 實情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 全體國民이 필요로 하는 食糧生産이 不足하기 때문에 流通過程에 있어서의 米價操作은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이 事實이다.

<表 6> 全國都賣物價指數와 穀物價格指數

年 度	總 指 數	穀 物 指 數	穀 物 外 指 數
1961	51.2	50.3	51.4
1962	56.0	53.3	56.5
1963	67.5	84.5	64.2
1964	90.9	106.7	87.8
1965	100.0	100.0	100.0
1966	108.8	105.0	109.9
1967	115.8	117.0	115.7
1968	125.2	130.0	124.5
1969	133.7	152.7	130.8

資料: 「통계월보」 한국은행 1970. 3

그러던 米穀을 中心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穀物市場의 流通現況은 어떠한가에 관하여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

農産物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自己消費를 위해서 生産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從來와는 달리 相當한 부분에 또한 現金收入을 目的으로 生産하는 경향이 있어 과거와 같은 自給自足的 營農方式이 점차 止揚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事實은 經濟가 高度化되고 專門化되었을 뿐아니라, 農家가 필요로하는 消費支出이 크게 增大하여 감에 따라 營農形態도 자연적으로 經濟作物化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穀物의 경우에도 顯著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쌀의 경우에 있어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다.

우리 나라 쌀의 경우는 農家가 現金收入을 걸우는데 있어서 가장 큰 商品이 되고 있기 때문에 市場에서 販賣되는 米穀의 量도 점차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즉 1969年 현재 우리 나라 쌀의 商品比率은 72.01% 잡쌀은 61.3%를 示顯하고 있다. 또한 雜穀의 경우도 과거 몇년전보다 훨씬 높은 商品比率을 보이고 있어 生産量의 約 50%까지를 市場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商品比率의 增加추세로 말미암아 穀物市場의 流通過程上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問題들은 生産者에게는 물론 消費者에 이르기까지 또는 流通業者와 政府當局에 이르기까지 重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 多段階의인 流通經路

우리 나라에 있어서 穀物을 生産하고 있는 農家は 대부분이 零細한 小農일 뿐 아니라 地理的으로 널리 散在되어 있으며, 市場情報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어둡기 때문에 穀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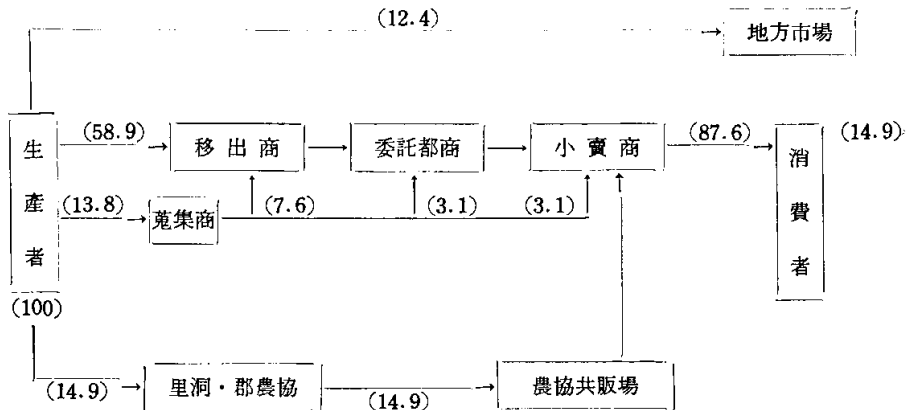
販賣하는데 있어 항상 不利한 立場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米穀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대개가 4~5개의 流通過程을 거쳐서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게 흘러가게 된다.

이를 具體的으로 보면, 크게 自由市場 流通經路를 거쳐서 消費地로 나가는 것이 約 70%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가 農協組織이나 직접 地方市場을 통해서 흘러나게 된다.

위의 같이 自由市場流通經路를 거쳐서 米穀이 消費者에 傳達되는 동안 中間商人은 不合理한 諸流通經費와 不當한 利益을 남기게 됨으로 결국 生産者의 受取價格은 적어지는 反面 消費者의 支拂價格은 上昇하게 된다.

이들의 中間商人은 대개 그들의 큰 商業資本에 의하여 많은 米穀을 購買하여 두었다가 盛需期에 販賣하여 價格을 높이 받는 買占賣借行爲를 하게 되기가 普通인 것이다. <表 7>은 우리 나라의 最近에 있어서의 自由市場流通經路를 나타낸 것으로서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가 提供한 資料에 의한 것이다.

<表 7> 米穀自由市場流通經路
(京畿地方~서울 1968. 10~1969. 1)



※ 數字는 農家の 米穀 總 판매량을 100으로 본 移動數量의 구성비율임

2) 流通「마아진」의 構成

最近 農林部の 農業經營研究所가 發表한 資料에 의하면, 米穀의 경우 自由市場流通經路를 거쳐 穀物市場에 까지 出荷할 때, 精穀가마당(80kg)으로 流通費用 237원 中間商人의 利益 465원, 合計 702원이라는 높은 「마아진」을 發生시키고 있다. 이는 京畿道地域에서 消費地인 서울까지 이르는 流通過程에서 나타나는 것임으로 사실상 영남이나 호남지방의 쌀이 大都市의 消費者에게 傳達될 때까지는 더욱 큰 流通經費 또는 「마아진」이 發生될 것으로 보인다. <表 8>은 미국의 自由市場經路에 있어서 流通段階別 「마아진」을 表現한 것

으로서 京畿米의 경우 產地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사이에서 發生한 「마아진」인 것이다.

<表 8> 米穀의 流通段階別 「마아진」(精穀 80kg)

(單位: 원)

流通段階別	販賣價格	流通「마아진」		計
		流通費用	中間利得	
生産者受取價格	4,711	10	—	10
蒐 集 商	4,791	20	50	70
移 出 商	5,043	140	112	252
委 託 都 商	5,213	27	143	140
小 賣 商	5,413	40	160	200
計	—	237	465	702

여기서 生産地와 消費市場의 거리에 따라 어느 程度의 유통「마아진」이 發生하고, 農家 受取價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시장과의 거리가 멀수록 出荷費用이 커짐으로 「門前販賣」의 比率이 높아지지만, 일단 市場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는 유통「마아진」이 12 km 일 때 129원이나 되어 實際農家가 受取하는 價格은 精穀 80 kg 當 4,662원 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京畿地方에서 서울로 운반, 판매하는 경우이나 全國적으로 計算하여 본다면 대단히 큰 것으로 判斷된다. <表 9>는 생산지와 중심시장과의 거리별 「門前販賣」비목에 대한 농가수취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表 9> 門前販賣米穀의 農家受取價格의 比較

(%)

距 離 別	全販賣에對한 門前販賣比率	生産地中心 市場價格	農 家 的 受 取 價	流通「마아진」		
				수송비용	中間利得	計
4 km 未 滿	45.1	4,791	4,726	30	35	65
4~8	51.0	4,791	4,710	40	41	81
8~12	62.4	4,791	4,685	50	56	106
12 km 이 상	71.0	4,791	4,662	65	64	129
평 均	57.6	4,791	4,695	46	49	95

資料: 「農業經濟研究報告 AER-17」 農業經濟研究所 農林部 1970. 3

이와 같이 볼 때, 全國的인 消費市場을 갖고 있는 穀物은 보다 큰 需要에 對備하여 生産量을 늘릴 수 있는 新品種의 改良은 물론이거니와, 穀物만을 위주로 하는 零細農經營을 止揚하고 보다 大衆化하고 장래의 需要에 應할 수 있는 麥類 및 雜穀, 豆類, 薯類生産에 노

력함으로서 穀物市場의 規模를 擴大開拓해야 할 것이다. 한편 消費地의 穀物需要市場은 늘어나는 人口와 所得水準에 부응한 食生活의 變化에 따라 市場환경의 變貌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不足된 상태에 있는 穀物生産은 늘어나는 需要에 充當치 못하는 所謂 市場以前의 問題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農民 스스로의 自發的 노력과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農業開發에 보다 더 力點을 둔 政府의 開發計劃에 따른 重農政策이 그 實效를 거둠으로서, 國內糧穀生産量만으로도 自給自足할 수 있는 時機가 앞으로 數年後에 到來되어 질 수 있을 때, 비로서 우리 나라의 穀物消費市場은 어느 程度 自律의이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主穀價格의 合理化와 流通構造의 改善

穀價水準을 支配하는 要因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複雜하지만 終局的으로 糧穀市場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穀價가 不安定한 理由는 根本的으로 우선 糧穀市場構造가 不合理하다는데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不合理한 糧穀市場의 構造를 改善하여 穀價의 安定과 需給의 원활을 期하려면 여기서 많은 問題點에 直面하게 된다.

즉 自由市場機構의 間接的 統制로 需給의 원활과 價格安定을 이룩하려는 現行 糧穀管理制度下의 一面 自由, 一面 統制方式은 自由市場機構의 脆弱性과 非能率性으로 因하여 充分하게 所期의 成果를 얻을 수 없었고, 또한 政府管理 그 自體도 最近에 이르러 점차 實効性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自由市場機構를 合理的으로 調節 統制할 수 있을 만큼 充分히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穀物市場의 合理的인 운영을 위한 政策目的을 達成하려면 穀價가 一定한 水準以內에서 安定될 수 있도록 充分한 價格調節機能이 發揮될 수 있는 市場機構의 育成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糧穀需給調節의 원활과 아울러 價格形成에 있어서 生産者價格의 保障과 消費者價格의 安定을 同時에 勘案한 政策目的이 成就될 수 있도록 現在の 糧穀市場機構를 改編하는 方向은 다음 세가지로 要約할 수가 있다.

첫째, 政府가 糧穀流通體系를 全面 統制하는 方向

둘째, 現在와 같은 一面 統制, 一面 自由去來方式을 改善하는 方向

셋째, 完全自由를 指向하는 方向

이상의 세가지 方法中 가장 合理的인 方法을 擇하는 것이다.

물론 政策目的을 가장 強力하게 達成하기 위해서는 첫째의 方法이 보다 效果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政府가 市場에서 現物操作까지를 擔當하게 되면, 그만큼 財政需要의 擴大가 不可避하게 되고, 市場活動에 있어서 經驗이 不足한 公務員들이 市況에 對하여 機動的으로 對應하는데에도 많은 難點이 있을 뿐 아니라, 莫大한 規模의 糧穀買入資金이 一時에 放出되면 「인플레이션」을 促進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自由主義國家에 있어서 完全統制란 어떠한 나라이건 戰時를 除外하고는 取하기 困難한 方法인 것이다. 과거의 例로 보아서 食糧의 統制는 農民에게 恒상 損失을 가져왔기 때문에 農民의 反撥을 사게 될 憂慮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셋째의 方法인 完全自由를 許容하는 方法을 擇하게 되면 穀價의 一定水準에서의 安定이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方法이 採擇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農業을 企業農化하여 生産量이 需要量을 「커버」할 수 있게 되거나, 食生活에 對한 國民의 消費構造가 穀物위주에서 脫皮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둘째의 方法인 一面 自由, 一面 管理라고 하는 절충방식을 계속 보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절충방식은 과거와 같이 行政指示라든가, 감독이라고 하는 領域을 벗어나 名實相符한 二重穀價制를 實現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現在 政府가 採擇하고 있는 糧穀販賣를 위한 登錄小賣商制度和 政府放出 糧穀에 對한 價格告示制度는 우리 나라의 穀物의 自給自足이 可能할때까지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二重穀價制의 實現을 위한 政府의 糧穀收買資金은 어떠한 方法을 써서라도 確保해야 할 것이다.

自由市場을 바탕으로 해서 많진 적진 糧穀流通이 이루어 질 때, 그 流通의 中心體는 商人組織과 農協組織을 들 수 있는데, 商人組織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流過程이 多段階로 分離되어 있으며 獨立의이며 多種多樣한 機能을 가진 영세한 商人들로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中間流通費用이 過重하게 發生하며, 또한 이들의 活動은 결국 公益보다는 自己의 營利를 優先目的으로 하고 있어, 投機的 操作行爲를 빈번히 恣行하고 있다는 점등의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糧穀流通組織의 中心體로써 農協組織을 活用하는 것이 農協自體의 發展에 의한 農民經濟의 保護를 위해서나 또는 國民經濟的 見地에 立脚한 消費經濟의 安定이라는 立場에서나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이상과 같은 穀物의 流通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流通部門은 모든 部門에 걸쳐 相對的으로 落後된 상태에 있다. 곧 우리나라의 經濟는 最近 約 10年동안에 있어서 높은

成長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나라 經濟를 계속 安定的으로 發展시키려면 相對的으로 落後된 部門인 流通產業部門을 近代化하여 經濟의 效率化를 期함으로써, 國民經濟 生活의 隘路를 除去할 需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流通을 담당하는, 보다 效率的인 流通機構를 開發하고 近代化해서 流通企業의 構造改善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 바, 穀物의 경우도 例外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政府의 干涉은 어디까지나 市場의 自律的 기능을 살려서 장차 오더리-마케팅 (Orderly Marketing)을 具顯할 수 있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